

## 무지 외반증 환자에 있어서 원위 연부조직 교정술을 이용한 치료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정덕환 · 이재훈 · 정비오 · 김영준

### ❖ 목적

무지 외반증 환자에 있어서 원위 연부 조직 교정술을 시행하고 임상적 결과와 방사선학적 결과 및 합병증을 분석하였다.

### ❖ 대상 및 방법

2001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50세 이상의 무지 외반증 환자에서 통증을 동반하며 보존적 요법에 증상 호전이 없고 방사선학적으로 변형을 보이는 21명, 32예를 대상으로 원위 연부 조직 교정술을 시행하였으며, 남자가 1명, 2예 여자가 20명, 30예이었다. 수술 시 평균 연령은 58.5세(범위, 50세-76세)였으며, 평균 추시기간은 3년(범위, 7개월-7년 11개월)이었다.

임상적 평가는 수술 전과 최종 추시 시의 Visual analogue scale (VAS)과 수술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통증 및 미용에 대한 만족도,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scoring system for Hallux-Metatarsophalangeal-Interphalangeal을 이용하였으며 방사선학적 분석은 Hallux valgus angle (HVA)과 Intermetatarsal angle (IMA)을 이용하였다.

### ❖ 결과

AOFAS score는 수술 전 평균 60.3점(범위, 45-78점)에서 최종 추시 시 평균 87.1점(범위, 70-97점)으로 향상되었으며 VAS는 수술 전 평균 7.0(범위, 4-9)에서 최종 추시 시 평균 3.4(0-9)로 호전되었다. 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최종 추시 시 83.3%에서, 통증에 의한 만족도는 93.3%에서, 미용상의 만족도는 46.6%에서 각각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최종 추시 시 측정된 HVA는 평균 21.8°(범위, 5.2°-48.3°)로 수술 전 평균 31.2°(범위, 15.0°-54.3°)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개선되었다. IMA는 수술 전 평균 11.8°(범위, 6.3°-18.7°), 최종 추시 시 평균 10.3°(범위, 6.3°-16.0°)로 측정되었다. 수술 후 최종 추시 시까지 4예에서 외반 변형과 통증을 재발을 보였으며 이로 인하여 1예에서 재수술을 실시 받은 예가 있었으며 감염, 신경 마비 등 합병증은 없었다.

일반연제

❖ 결론

무지 외반증 환자에서 원위 연부조직 교정술을 시행한 경우 통증을 경감시키고 정렬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술식으로 생각되며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수술에 대한 미용상의 만족도 보다는 통증 경감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우수하였는데 이는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세심한 환자의 선택과 적절한 술 후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

색인단어 | 무지 외반증, 원위 연부조직 교정술